

전화 민원도 일사처리로 해결

순창군,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전화민원 1987건 전화·구술 등 접수 처리

순창군이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987건의 전화, 구술 등 기타민원을 접수·해결하며 민원처리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접차 높아지고 있는 행정수요와 민원인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군은 지난해 1월 기타민원 업무처리 지침을 순창군 예규로 정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지침에는 지역특성상 고령의 민원인이 많아 군정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전화, 구술, 방문 등으로 제기된 민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방안으로 방침을 정한 것. 현재 기타민원 처리는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제기하면 소관부서에서 민

원내용을 점검·조치 후 그에 따른 결과를 매월 20일경 민원 총괄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괄부서에 제기된 민원은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토록 해 소관부서의 민원 처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 민원유형별 처리기간을 즉시부터 최대 14일까지 정해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처리 행태도 적극 차단하고 있다.

더욱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의 재방문이나 전화, 구술 절차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민원인 1회 방문처리 원칙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까지 접수된 민원사례를 살펴보

면, 전화민원이 1,048건, 방문민원 804건, 현장민원은 135건으로 집계돼 전화민원 처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가로등, 빈집철거, 교통시설 분야와 각종 공사 소음, 악취 등과 관련 고충민원 등이 많아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토록 군은 관련 민원업무절차 개선에도 고심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타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과 함께하는 순창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외출 장병 수송 지원' 실시

임실군이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수송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13일부터 제6탄약창 부대를 시작으로 지역 주둔 외출 장병을 위한 수송지원 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 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군은 교통 여건이 불편한 농어촌의 군 장병들이 외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수송 수단은 버스로, 오후 5시 30분 부대에서 출발해 8시 30분에 부대로 다시 보내주는 코스다.

앞서 군은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부대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이 불편해 부대 자체 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외출 인원을 제한했다"며 "하지만 이번 임실군의 외출 장병 교통편의 지원으로 인해 더 많은 장병에게도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과 후 외출이 가능해진 군 장병들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임실 N치즈 특별할인행사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신병 수료식 개최지 수호를 위해 임실군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35사단 임영식과 수료식 때 군인과 가족, 방문객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친절도 향상 및 상생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심민 군수는 "군 장병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35사단 장병과 가족들이 수료식 등 임실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혜택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광한루 600년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기' 상설운영

남원시는 2019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한루 600년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기'를 지난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광한루원과 남원예촌 일원에서 상설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2019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됨으로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올해로 광한루 600년을 맞이해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6개분야에서 15회 거리공연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남원시에서는 이번엔 추진하는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추진결과를 토대로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내년에는 가장 남원다운 소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립국악단, 광한루 기념 국악 버스킹 추진

남원시립국악단은 5월~9월(8월 휴식 제외)까지 4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밤8시 시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광한루원에서 국악버스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광한루원 내에 있는 방장섬과 영주각, 완월정 등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형식의 공연으로, 국악의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밤풍경과 어우러진 소리를 만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모두가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순창군의 장류체험관이 새로운 체험요리를 선보였다.

순창장류체험관, 6월 신 체험요리 선봬

순창군의 대표 체험공간인 장류체험관이 올 6월부터 새로운 체험요리를 선보이며 관광객 유입에 나선다.

이번에 선보일 체험요리는 올라보밥피자, 밥버거, 순창꼬치맛탕, 고추장 매아-떡볶이 등 4가지 요리로, 식사 및 간식 내용을 위해 영양까지 고려한 맞춤형 체험요리를 개발했다.

장류체험관은 고추장볼고기피자와 고추장 민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오랜기간 운영하다 보니 체험객 재유입이 어려워져 있다.

현재 트렌드에 맞는 요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초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가 최근 자체 음식 품평회를 거쳐 4가지 요리를 최종 선정하고 올 6월부터 장류체험관을 방문하는 체험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엔 개발된 요리들은 고추장을 기본으로 하며, 버거와 피자, 꼬치, 떡 등과 접목해 전 연령층의 입맛에 맞도록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특히 순창꼬치맛탕은 최근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소떡소떡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된 요리로 10대 체험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군은 이번에 개발된 신 요리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전국의 학교, 여행사를 방문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에도 열을 올릴 계획이다.

또한 장류체험관이 고추장 체험요리관으로서 한번만 찾는 곳이 아닌 다시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매력적인 체험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 김재진 장류사업소장은 "오랜 기간 사람들의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장류소스와 요리가 어우러진 신개념 장류요리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장류체험관이 장류의 감동과 소중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추억의 매개체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여름방학 청소년진로 캠프 참여자 모집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관내 청소년의 예술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진로 아트캠프' 행사에 참여할 청소년을 총 60명 모집한다.

캠프는 8월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되며, 고등학생은 서울대학교에서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4박 5일 일정과 초·중학생은 남원에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립미술관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관람 일정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미술 프로젝트 및 멘토-멘티 맷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미술활동과 관내 작가와의 만남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김년수 문화예술과 과장은 "청소년들에게 보람찬 방학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시민이 감동하는 매우 진철한 남원시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노인 일자리사업 성과

남원시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 사업에 선정돼 인센티브 2,620만 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5개 일자리사업이 최고 그룹인 1그룹에 선정되었으며, 남원시의 시장형 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사업단을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남원시의 5개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의 면사랑국수, 면사랑잡탕, 농산물가공, 시니어미트 사업단, 노인복지관의 실버카페 꽃길 사업단으로 1그룹에 선정되었다.

1그룹은 배정인원수, 1인당 연매출, 1인당 월평균 보수 등 8개 지표 50점 중에서 3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농산물가공 사업단은 15명이 참여해 밤, 도라지 등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단으로 밤과 도라지 가공 납품, 딸기작업, 고추작업 등 실시해 연간 1억 3,8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시니어미트 사업단은 9명이 매장을 운영해 1억 6,000여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시장형 사업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다음 해에는 보다 많은 사업단이 1그룹을 받아 인센티브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그룹을 받아 지금까지 총 2억 3,575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춘향제 기간 '친절남원' 홍보

남원시 총무과는 제89회 춘향제 기간(5.8~5.12) 남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친절 남원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춘향제 행사장에서 실시한 캠페인에서는 2,000개의 스티커를 배부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친절(불친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친절남원'을 홍보하였으며, 축제장 곳곳에는 노란색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를 실시했다.

남원시는 4월부터는 실시간으로 친절 관련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친절남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친구검색창에 '친절남원'을 검색해 플러스친구를 추가하면 된다.

류흥성 총무과장은 "춘향제에 찾아주시는 방문객에게 즐거운 추억과 남원의 친절함을 소개해줄 기회"라며, "시민이 감동하는 매우 진철한 남원시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